

# 쉐마미술관

## I. 관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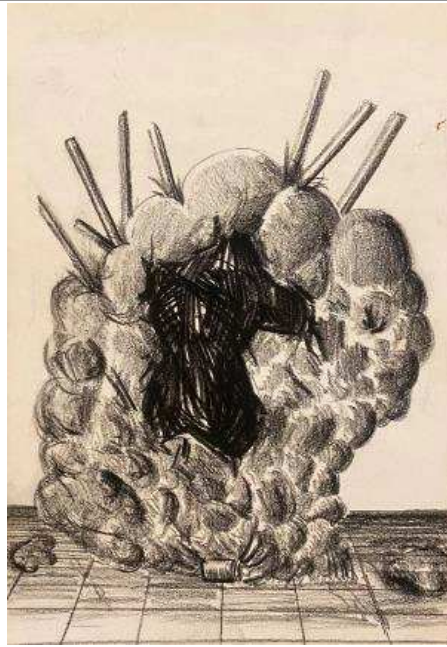
관 기본 사항	관 명	쉐마미술관		
	주 소	(우: 2815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241		
	홈페이지	<a href="http://www.schemaartmuseum.com">http://www.schemaartmuseum.com</a>		
	대표전화	043-221-3269	대표팩스	043-217-3269
	운영 형태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술관 <input type="checkbox"/> 국립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대학		
담당자	성 명	한 영 애	직위/부서	큐레이터/학예실장
			이 메 일	kwanart@hanmail.net

## II. 일반현황

박물관등록번호 (등록증에 의거)	제 2011-1 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17-82-64214
개관시간	- 동절기 : 09:30~05:30 - 하절기 : 09:30~06: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조직구성	관장1, 학예사1, 연구원1, 전시해설사1, 인턴2 ※ 학예사 현황(자격증 취득자) : 02명		
<b>취약계층 대상 관련 주요 활동 실적(최근 3년 이내)</b>			
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2020년	2020 유아문화예술교육_아트스타	충북문화재단	
2020년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_가로지르기	충북문화재단	
2020년	2020 문화가 있는 날_꽃보다 당신 4	사립미술관협회	
2019년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_씨앗큐브	충북문화재단	
2019년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_헬로아트	충북문화재단	
2019년	2019 문화가 있는 날_꽃보다 당신 3	사립미술관협회	
2018년	2018 무지개다리사업_너와함께_With U	충북문화재단	
2018년	2018 문화가 있는 날_꽃보다 당신 2	사립미술관협회	
관 전경 사진			
			
전시 관련 사진 or 공간 사진	2019.09.03.~10.04. '달을 수 없는 지점, 보이지 않는 시점' 전시전경		2020.01.04.~03.08. 다양성 언어로서의 현대미술 전시 전경

## III. 전시 계획

특별전시명	스튜디오(studio), 조현애 개인전, 제 8 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 - ‘다시 대화하는 풍토(再び対話する風土)-한국·일본 국제교류전, 2021 후기애스펙트 New-Conversation, After the Covid-19, 2021 공예비엔날레 연계 특별전시 - 한국 현대미술 반세기 동세대 특별전, 궤적들, 2021 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전, 불안정한 가능성 1/2		
전시 기간	2021. 4. 29 - 12. 5		
전시 장소	쉐마미술관		
관람소요시간	20-30분	수용인원	20 명
전시주제	스튜디오(studio) - 스튜디오란 작가들이 작업을 생산하는 장소이자 소유하는 장소이며 움직이는 장소를 대표한다. 다 셋명의 작가들은 이곳의 내 외부에서 벽이나 혹은 야외에서 작품의 영감을 느끼고 이곳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전시 세부내용	스튜디오 (studio)	2021. 4. 29 - 6. 6	<p>쉐마미술관에서 기획한 이번 ‘스튜디오(studio)’ 전시는 확장되고 있는 현대미술에서 장소성에 대한 물음과 실험적인 창작 공간 역할의 매개체가 되고자 한다. 현대미술에서 ‘장소’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튜디오(studio)’ 전시에서 장소의 이미지는 바로 곧 정체성이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각자의 ‘정체성’ 찾으며 만들고 있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 김현묵, 나일 크레이븐, 신용재, 이선구, 최재영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작가들에게 쉐마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부여함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화이트 큐브와 외부 환경이 작가들에게 각기 다른 기억과 영감이 마주하여 회화와 설치까지 다양한 매체로 형상화되는 전시이다. 작가들은 작업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들이 지니는 무한한 잠재력과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험과 도전 그리고 작업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동시대의 담론과 다각적인 시각적 조형 작품 전시는 지역의 현대미술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p>



나일 크레이븐, Untitled (protest),  
16x26cm, Conte Crayon on Paper,  
2021



김현목,  
미술관리서치시도설치모습\_1



신용재, 운형리듬3, Acrylic on  
canvas, 72.7x90.9cm, 2021



최재영, Easter Eggs Puzzle\_2,  
162cm x 130cm, Oil on canvas,  
2021



이선구, Line  
drawing-3\_50x35(cm)\_ an inked  
string on paper\_2020

조현애 개인전	2021. 6. 10 - 7. 11	조현애 작가의 Unknown time시리즈는 과거의 명화에 현재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공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호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 은유로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웨마아트포럼 회원이기도한 조현애 작가는 이번 기획초대전을 통해 작가만의 일체의 기억과 흔적, 그 흔적을 넘는 시간의 두께를 시각적 언어로 보여주고자 한다.
제 8 회 청주국제현대	2021. 7. 15	2021년 웨마미술관의 제 8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은 한국

<p>미술전 - ‘다시 대화하는 풍토(再び対話 する風土)-한 국·일본 국제교류전</p>	<p>- 8. 15</p>	<p>과 일본 양국의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양국이 다시 대화하는 소통의 새로운 풍토로 만들며 문화와 예술을 생각하며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 작가들과 일본 작가들이 함께 전시함으로써 양국 문화예술교류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며 참여 장르는 회화, 평면, 입체, 영상으로 구성한다.</p>
<p>2021 후기엑스팩트 New-Conversa- tion, After the Covid-19</p>	<p>2021. 8. 18 - 9. 4</p>	<p>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기획전시</p>
<p>2021 공예비엔날레 연계 특별전시 - 현대미술 반세기 동세대 특별전</p>	<p>2021. 9. 8 - 10. 5</p>	<p>동세대전이란, 해방이후부터 사변이전 사이에 태어나서 1960년대 후반에 대학생활이 가졌던 세대로 현재 연령으로 70대 이르는 한국 현대미술의 원로작가 그룹에서 가장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가리킨다. 이번 전시는 2021 청주 공예비엔날레 연계 특별전으로 공예의 확장성과 순수예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특별전이다.</p>
<p>궤적들</p>	<p>2021. 10. 8 - 11. 14</p>	<p>모든 것은 움직임 - 운동이라는 테마로 나를, 세계를 진동시킨다. 여태껏 현대미술의 가장 강력한 화두 중 하나인 운동성은 세계를 규정하고 미학을 규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미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예술가들을 소개하려 한다. “궤적” 이라 이름 지어진 전시제목처럼 운동을 하나의 드로잉으로, 또다른 차원의 미적 운동을 자행하는 작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p>
<p>2021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전</p>	<p>2021. 11. 18 - 12. 5</p>	<p>1년간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의 진행 내용과 과정을 아카이브형태와 전시 형태로 진행되는 결과 보고전이다. 전시는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자들로 사회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미술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쉼마미술관이 공공 문화공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는 시간.</p>
<p>불안정한 가능성 1/2</p>	<p>2021. 11. 18 - 12. 5</p>	<p>‘불완전한 가능성’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이제 막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신생 작가들이다. 쉼마미술관은 지속적인 지역 예술의 밸런스 구축을 위해 청년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며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어 우리 지역의 예술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해 보는 전시.</p>